영대신문

yureka.yu.ac.kr

영대신문은 대학인의 양심을 대변합니다

1685호 2024년 9월 2일 월요일

I 04 대학·사회	I 05 문화	I 06~07 인물	I 10 인턴 특집
지식으로 통(通)하는 융합대학!	텍스트, 힘있고 HIP하게!	여행으로 채우는 인생의 페이지, 성연재 동문	'IN' your 'TURN'!

교내 식당, 학내 구성원 모두의 식당이 될 수 있도록

교내 식당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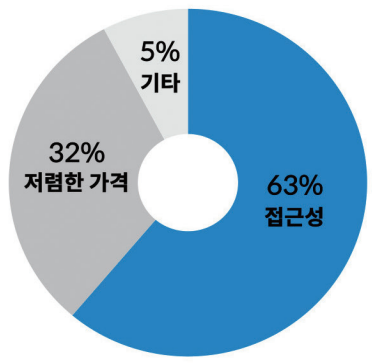
교내 식당, 학내 구성원 모두의 식당이 될 수 있도록

개강과 함께 교내 식당 이용에 대한 우리 대학교 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교내 식당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와 본교의 개선 방향을 들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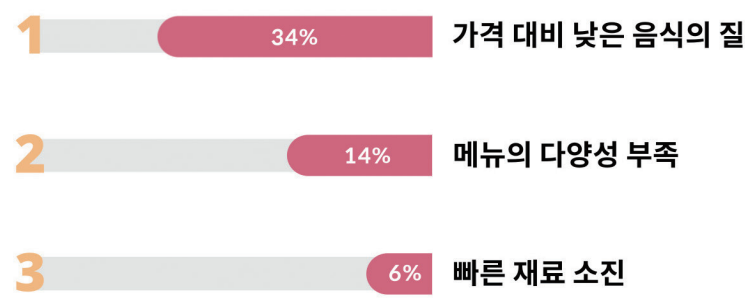
학생들이 생각하는 교내 식당은?=현재 우리 대학교는 ▲교직원 식당 ▲자연계 식당 ▲학생회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학내 구성원들은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우리 대학교 게시판을 통해 교내 식당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표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본교 학생 104명을 대상으로 '교내 식당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63%(66명)의 응답자가 교내 식당의 높은 접근성을 이유로 교내 식당을 찾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학내 구성원들은 빠르게 식사가 가능하다는 점, 메뉴의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교내 식당 이용에 만족감을 표했다.

교내 식당을 이용하는 이유



교내 식당의 불편 사항



그러나 일부 학내 구성원들은 교내 식당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설문조사 결과, 교내 식당에 불만족한 응답자들은 ▲가격 대비 낮은 음식의 질 34%(35명) ▲메뉴의 다양성 부족 14%(15명) ▲빠른 재료 소진 6%(6명) 등을 불만족 이유로 뽑았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A 씨는 "교내 식당은 학내 구성원의 쉽고 맛있는 한 끼를 위해 운영되는 것인데, 현재는 이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의 교내 식당, 어떻게 나아갈까?=본지 취재 결과, 본부 측은 교내 식당의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규진 재산관리팀 담당자는 "교내 식당 운영 업체에 학생들의 불만 사항을 전달해 개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 전했다.

한편, 교내 식당 운영 업체에서는 학내 구성원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 중임을 밝혔다. 실제 해당 업체는 ▲자체적인 위생 검사 ▲정기적인 모니터링 ▲타 업체의 메뉴 벤치마킹 등 메뉴 품질 향상을 위한 여러 방안을 실행 중이다.

이하진 준기자 lhj0826@yu.ac.kr
전태영 준기자 jty1226@yu.ac.kr
한지혜 준기자 hjh1019@yu.ac.kr

지방시대의 도약, 지역의 희망찬 미래를 그리다!

지난 5월, 우리 대학교는 천마아트센터 이시원글로벌컨벤션홀에서 '지방시대 대응 지역혁신 동반성장 포럼'을 개최했다. 이는 본교 및 경산시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었다.

'지방시대 대응 지역혁신 동반성장 포럼'은 지역 자생력에 관한 구체적이면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에 정책 연구와 현장 경험을 갖춘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당일 행사장에는 최외출 총장과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해 ▲본교 학생 ▲우리 대학교 교수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100여 명 등이 참석했다. 본식은 최외출 총장의 힘찬 환영사로 시작해 조현일 경산시장, 박순득 전 경산시의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포럼은 지역 전문가들의 지역활성화 정책 및 전략 발제를 주축으로 1, 2부에 걸쳐 진행됐다. 1부에서 전문가들은 국내의 불균형한 도시 발전 요인을 밝히며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추진 방향 및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상생을 통한 경산시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경산 지역이 당면한 현안과 과제, 정주 여건 개선책 등 협의가 이뤄졌다. 또한 이들은 경산시의 ▲지역 특성 ▲경제 산업 ▲일자리 역량 등을 밝히며 지자체와 기업, 대학(이하 지산학)의 상생관계를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7월 건립된 우리 대학교 내 지역혁신동반성장센터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관계를 맺은 국내 첫 사례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설립됐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센터에서는 다양한 연구와 교육, 행사 등을 계획 및 추진하고 있다. 실제 지역혁신동반성장센터는 5월에 열린 포럼의 후속으로 가을에 지역-기업 상생 포럼을 열 예정이다. 이는 지역기업에 집중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업친화적인 경산시로의 방향 ▲지산학 상생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진행될 전망이다. 지역혁신동반성장센터 측은 "해당 포럼과 같은 자리가 지속적으로 열려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나아가 지방시대의 미래를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방시대 대응 지역혁신 동반성장 포럼 개최 장면

차승효 기자 csh0524@yu.ac.kr

2025학년도 수시모집 요강, 주 변경 사항은?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주요 변경사항

2024학년도 모집요강	→ 2025학년도 모집요강
학과 신설 개설	차세대반도체학과 신설
	스마트모빌리티학과 신설
항공운송학과 신입생 모집	항공운송학과 신입생 모집 중단
전공자유선택학부 178명	전공자유선택학부 362명

지난 5월 '2025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이 공개됐다. 해당 모집 요강에는 ▲학과 신설 ▲항공운송학특별전형(항공운송학과) 폐지 ▲전공자유선택학부 수시모집 인원 증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학과 신설, 수시모집 인원 증가 등 일부 모집 요강 변경돼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신설 학과 개설=오는 2025년에는 차세대반도체학과와 스마트모빌리티학과가 신설될 전망이다. 차세대반도체학과는 화합물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 배우며, K-반도체산업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개설됐다. 해당 학과는 ▲일반학생전형 ▲지역인재전형 ▲기회균등전형 I (일반) ▲잠재능력우수자전형을 통해 총 25명을 수시모집한다. 이에 대해 김종수 교수(물리학과)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과학기술 개발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개설된 학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마트모빌리티학과는 우리 대학교 최초로 개설되는 온라인 학과로, AI 융복합 미래 운송수단 기술에 대한 내용을 교육한다. 해당 학과는 수시모집 전형인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으로 3년 이상의 재직자에 한정해 30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기동 교수(로봇공학과)는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스마트모빌리티학과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항공운송학과 신입생 모집 중단=또한 모집 요강에 따르면 항공운송학과의 항공운송학특별전형이 폐지된다. 해당 학과는 정원 외 학과로서 공군본부와의 협약에 따라 운영됐지만, 최근 공군과의 협의에 따라 모집을 중단하게 됐다.

수시 모집 인원 증가=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는 전공자유선택학부의 모집 인원이 대폭 증가했다. 해당 학과는 지난해에 비해 184명 증가한 362명을 모집한다. 이는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기 전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한편, 학과 인원 조정 및 신설 학과 개설로 인해 2025학년도 수시모집 인원은 총 4,661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77명 증가했다. 이에 신기훈 입학팀장은 "이번 수시모집은 여러 면에서 변화가 많으므로 해당 요강을 눈여겨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윤아 준기자 jya0216@yu.ac.kr

반도체 특성화대학 선정!

국립금오공과대와 협업해 반도체산업 인재 양성

지난달 4일, 우리 대학교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의 비수도권 동반 성장형 유형으로 선정됐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은 우리 지역의 반도체/ICT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추진되며, 기업이 요구하는 첨단 인력 약 1,40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본교는 오는 2028년까지 최대 4년간 정부로부터 280억 원의 투자금과 교비를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학교는 ▲반도체 관련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운영 ▲반도체 융합 전공 운영 ▲비메모리 반도체 소자 공정 장비 전문 인재 양성 ▲전력반도체 및 센서 반도체 소자 공정 장비를 이용한 교육과정 구성 등을 계획 중이다.

해당 사업에서 우리 대학교는 국립금오공과대와 협업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는 ▲공정 분야 ▲부품 ▲소자 ▲소재를 아우르는 인재를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함이다. 본교는 소자 공정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며, 국립금오공과대는 ▲부품 ▲소재 ▲장비에 대한 교육을 전담한다. 이에 우리 대학교와 국립금오공과대가 협업해 ▲공동 교과목 운영 ▲반도체 소자·공정 실습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반도체 융합 전공 신설 등 반도체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특히 공동학점제를 실시해 공동 교과목을 제공함으로써 취업과 관련된 질적 우수성 확보를 목표하고 있다.

김종수 산학협력단장은 "사업 선정은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본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의 결과"라며 "반도체 관련 산업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김규리 기자 kgl0414@yu.ac.kr

77년 새마을 역사, 세계를 놀라게 하다

지난 5월 28일과 29일, 우리 대학교는 개교 77주년을 기념해 호텔인터불고대구와 본교 천마아트센터 이시원글로벌컨벤션홀에서 이틀간 글로벌 새마을 포럼을 개최했다. 이는 새마을운동을 통한 현안문제 해결을 의논하고, 지속 가능한 새마을 2.0의 이행을 위해 기획됐다.

이번 포럼은 '인류 공영의 열쇠, 한국발전경험 공유: 새마을 국제개발 공유사례'를 주제로 열렸으며,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조현일 경산시장 ▲최외출 총장 ▲데시 달케 두카모 에티오피아 대사 ▲은쿠비토 만지 바카라무사 르완다 대사 등이 참석해 8년 만에 열린 포럼의 개최를 축하했다. 최외출 총장은 "우리 대학교가 대한민국의 발전 경험과 새마을운동을 학문화해 전 세계에 전하고 있다"며 "우리의 노력을 평가하고 공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리 대학교는 포럼에서 77년 동안 새마을국제개발협력원의 사업을 통해 도출된 82개국 4,000명의 연수 교육 성과와 실증적인 협력 정책을 공유했다. 더불어 ▲지구촌 현안 문제 해결 ▲국제 협력 성공 모델 공유 ▲지구촌 공동 번영의 열쇠 등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토의를 진행했다.

이에 이근호 국제개발협력원 담당자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쉽고 대중적인 포럼을 기획했다"며 " 모든 참석자에게 뜻깊고 보람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변정섭 기자 bjs0510@yu.ac.kr

뉴스브리핑

영남대, 라이덴랭킹 '국내 TOP5'로 위상을 높이다

우리 대학교는 '2024 라이덴랭킹'에서 종합 순위가 크게 상승해 '국내 TOP5'에 진입했다.

라이덴랭킹은 대학 평판도 등 주관적인 정성적 평가 요소들을 배제하고 논문의 질적 수준을 평가해 대학의 연구 성과와 연구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는 매년 종합 순위와 함께 ▲수학·컴퓨터 ▲생명·지구과학 ▲사회과학·인문학 등 5개 부문을 발표하며, 본교는 국내 종합 순위 5위를 차지했다.

우리 대학교는 수학·컴퓨터 분야에서 올해도 국내 1위를 기록하며 10년 연속 연구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생명·지구과학 분야는 지난해보다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며 국내 2위에 올랐다.

최외출 총장은 "세계적인 대학평가에서 본교의 성과가 해마다 상승해 명문 사립대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류사회 공동번영에 공헌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동장치 인증으로 더 안전하게!

지난 7월 1일부터 우리 대학교는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을 도모하고 도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제에서 정의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개인 소유의 전동킥보드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전동이륜평행차 ▲전동휠 등이 포함된다.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유형 중 교내 구성원이 소지한 장치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해당 등록제는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등록의 경우 본부 KT텔레캅에 방문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실물을 보여준 뒤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교내에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온라인 등록 시에는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등록신청서와 안전모 및 *시리얼 번호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진을 KT텔레캅의 메일로 발송해야 한다.

한편, 지난 2021년 제정된 우리 대학교 '교내 이동장치 등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 제2장 제7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의 의무가 명시돼 있다. 본교는 지난 7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제를 시행했다. 이는 우리 대학교가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도입한 '교육시설 안전 인증 평가제도'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해당 제도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교육부에서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본교 일부 건물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항목을 포함한 외부환경안전 평가의 평가 대상이 됐다.

그러나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제는 강제성이 없어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 개인형 이동장치를 등록한 교내 구성원의 수는 지난 8월 28일 기준 4명이다. 이에 총무팀 측은 "추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등록하는 구성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며 등록제에 관한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라 전했다.

***시리얼 번호: 이동장치에 부여된 고유 식별 번호**

하진영 기자 hjy1126@yu.ac.kr

| 사령

대학·사회부 준기자
전태영(식품경제외식1)

문화부 준기자
장윤아(전공자유선택1)
한지혜(전공자유선택1)

편집부 준기자
이하진(전공자유선택1)

이상 4명 임명

ESG 창업을 위해 YU가 나서다!

'YUnicorn ESG 창업경진대회' 수상자들의 모습

지난달 29일, 우리 대학교는 천마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YUnicorn ESG 창업경진대회' 2차 결선을 진행했다. 이는 대구·경북의 우수한 ESG 예비 창업 기업 및 초기창업기업을 후원하고, 유망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양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번 대회는 ▲개회 선언 및 내빈 소개 ▲트랙1 예비 창업자 6개 팀의 *IR 발표 ▲트랙2 초기창업기업 6개 팀의 IR 발표 ▲심사 결과 발표 및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트랙1 예비 창업자 부문에서는 'DFC 디지털 신분 결제 시스템'을 발표한 김유정 씨가 대상을 수상했다. 김유정 씨는 "예비 창업자이다 보니 비즈니스 모델 설계와 같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IR pitching 교육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고 전했다. 더불어 트랙2 초기창업기업 부문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여주는 워터메이커'를 소개한 최아영 아디브 대표가 대상을 수상했다. 최아영 아디브 대표는 "뜻깊은 대회에서 수상한 만큼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우리 대학교 창업지원단은 2차 결선 진출 팀에게 전문 IR Pitching 교육 기회와 총액 4,600만 원 규모의 시제품 제작 비용을 제공한다. 더불어 트랙별 대상팀에게 해외 창업경진대회 참관 경비 지원계획을 밝혔다.

*** IR: 기업의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이하진 준기자 lhj0826@yu.ac.kr

글로벌 공생을 향한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 6월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사업'의 글로벌 공생 분야 *컨소시엄에 추가 선정됐다. 이는 지난해 디지털 분야 선정에 이은 성공적 성과이다.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사업' 글로벌 공생 분야에 선정된 대학은 지속 가능한 성장 및 공생을 주도하는 융합인재 양성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에 글로벌 공생 분야 선정 대학은 융합 교과목을 제공한다. 융합 교과목은 각 대학의 강점을 기반으로 개발 및 공유되며, 재학생들은 본인의 관심분야에 따라 이를 수강할 수 있다.

본교 역시 ▲경영학과 ▲글로벌교육학부 ▲무역학부 ▲사회학과 ▲화학공학부 등의 학과가 연합해 융합 교과목을 개발했다. 융합 교과목 수업은 대학 간 교과목의 원활한 공유를 위해 ▲동영상 ▲블렌디드 ▲오프라인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정재학 교수(화학공학부)는 "학생들은 해당 사업에서 진행하는 현장 경험, 협력 기관과의 취업 연계 등을 통해 인문학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7월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인재 양성 사업단에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HUSS 융합 캠프'가 열렸다. 해당 캠프에서는 3박4일에 걸쳐 25개의 전문 강좌 및 해커톤 대회 등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캠프보다 규모가 확대됐다. 해당 캠프에 참여한 권민지 씨(역사3)는 "HUSS 융합 캠프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듣고 지식의 폭을 넓히는 등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컨소시엄: 공통의 목적을 위한 협회 또는 조합**

전태영 준기자 jty1226@yu.ac.kr

원격수업 운영 규정 개정

일부 온라인 시험 대면화 및 MOOC 이수 가능 학점 변경 이뤄져

우리 대학교는 지난 7월 원격수업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이번 학기부터 교내 스마트교육의 시험 방식 및 MOOC 강좌의 이수 가능 학점에 변화가 생겼다.

스마트교육 시험의 대면화=본교는 스마트교육 운영 기준 개정으로 공정한 평가를 도모했다. 이는 지난 학기 진행한 *스마트교육 강의 비대면 시험 중 ChatGPT를 사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함에 따른 대책이다.

해당 개정으로 이번 학기부터 스마트교육의 시험은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인터넷강의 시험의 경우 대면으로 주말에 실시되며, 타 대학 학점교류 교과목은 본교 전산실에서 대면 온라인 시험을 진행한다. 단, 외부 기관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토익스피킹과 군복무 학점 인정 교과목은 비대면 시험으로 시험이 이뤄질 예정이다. 송명경 씨(국어국문4)는 "스마트교육 시험의 대면 시험 전환으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일부 학내 구성원은 스마트교육의 대면 시험 전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이동규 씨(특수체육교육4)는 "학생들이 대면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 시·공간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스마트교육센터 측은 인터넷강의의 대면 시험 시간표를 학기 초 사전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MOOC 강좌 학점에 변동이?=MOOC 강좌 이수 가능 학점 및 학점 부과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K-MOOC과 해외 MOOC을 합쳐 재학 중 최대 6학점을 이수할 수 있었다. 또한 학습 시간과 별개로 MOOC 강좌에는 강좌당 1학점이 부과됐다.

지난 7월 개정된 규정으로 이번 학기부터 재학 중 K-MOOC과 해외MOOC을 각각 6학점씩 이수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각 강좌의 학점은 한 학기당 학습시간에 따라 ▲15시간 이상 1학점 ▲30시간 이상 2학점 ▲45시간 이상 3학점이 부과된다. 지난 학기 해외MOOC을 수강한 전현주 씨(수학교육2)는 "MOOC 강좌 이수 학점 개편으로 학점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스마트교육: ▲블렌디드 ▲액티브 플립드러닝 ▲인터넷강의**

손유민 기자 sym0727@yu.ac.kr

바이오 전문가를 양성하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 7월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바이오 의약 분야에 선정됐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학생들에게 ▲디스플레이 ▲바이오 의약 ▲반도체 ▲이차전지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취업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는 바이오 의약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경북 지역의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5년간 70억 원의 사업비를 제공받아 학생들에게 ▲교육비 ▲교육 개발비 ▲교육 및 생활 지원금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캠프는 본교 재학생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고학년 및 바이오 의약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우선 선발한다. 한편, 실무·실습 교육과정은 기숙 형태로 진행돼 소수의 인원만 모집한다.

또한 이번 달부터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단인 'YU-BBC' 사업단이 구성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과 과정과 실무·실습 교육과정 등 단기 프로그램이 이뤄진다. 그중 일반 교과 과정은 참여 기업과 기관이 함께 공동 교육을 개발 및 운영한다. 몰입형, 실무형 교과 과정의 경우 계절학기 동안 이루어지며, 실무 교육 공동개발 및 인프라가 구축된다. 또한 참여자 중 일부를 선정해 현장 실습 지원 및 취업처 연계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에 대해 김지회 교수(의생명공학과)는 "5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니, 학생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윤아 준기자 jya0216@yu.ac.kr

데일리안
Everyday!
세상을 보는 눈, 데일리안
1일 10,000,000 PV
지금 바로 네이버와 다음에서 만나보세요

dailian.co.kr

융합대학, 대학을 당신과 YUng~합!

최근 저출산 및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운영난을 겪는 대학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 간 협력을 통해 교육의 패러다임을 개선하는 '융합대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융합대학의 의미, 현황 등을 자세히 살펴봤다.

융합대학, 지식의 경계를 넘어서다

'융합대학'이란 대학 간 학점 교류를 통해 연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온라인 강좌를 공유하는 형태의 대학이다. 이러한 융합대학은 학점 교류를 통해 소속 대학과 타 대학의 공동 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교육의 대안으로 제시된다. 지금부터 융합대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경계를 허문 배움, 여러 대학에서 지혜를 얻다=융합대학은 ▲공공기관 ▲기업 ▲지자체 ▲2개 이상의 대학이 모인 플랫폼의 형태로, 학점 교류 및 교육 자원을 공유하며 운영된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경영학부)는 "융합대학은 플랫폼으로 공유된 대학들의 경쟁력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융합대학 운영을 통해 출산율 저하 및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대학 운영난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융합대학 플랫폼 구축이 대학 간 상호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손병복 숭실대 교수(차세대반도체학과)는 "융합대학 체제를 통해 물적·인적 자원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핵심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기대 속 지난 2021년 교육부에서는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을 통해 융합대학의 운영 시스템을 체계화했다. 해당 사업은 대학이 연합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등 8개의 분야별로 연합체를 구성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최민우 영진전문대 교수(컴퓨터정보계열)는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을 통해 융합대학 운영 시스템의 체계 구축 및 타 대학의 우수한 교육과정 공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여러 지자체에서도 융합대학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대학, 지자체 등이 협력해 지역 플랫폼으로 운영되는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이 시작됐다. 이는 특정 지역의 대학이 연합해 참여하며, ▲Bio-PRIDE 융합대학(충북) ▲DGM 융합대학(대구·경북) ▲JST 융합대학(전북) 등 총 8개의 사업으로 운영된다. 해당 사업에 대해 김민영 경북대 교수(전자공학과)는 "지자체-대학 간 파트너십을 통해 대학과 지역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융합대학의 이상과 현실, 극복해야 할 과제들=한편, 융합대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속 융합대학 체제의 한계점 역시 제시되고 있다.

먼저 융합대학에 대한 홍보 부족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우리 대학교 학생 1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본지 설문조사 결과 64.4%(78명)가 본교 융합대학의 운영 여부에 대해 몰랐다고 응답했다. 우유빈 씨(수학2)는 "융합대학 제도가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기회 부여와 접근성 완화를 위해 차세대 반도체 혁신융합대학은 학위과정 제공 및 취업 연계 지원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융합대학 사업에서는 7개 연합체 대학이 교육과정, 강의 콘텐츠 등을 개발 및 공유하며 반도체 분야 전공 학생들에게 다전공의 형태로 제공한다. 손병복 교수는 "차세대 반도체 혁신융합대학은 전공자에게 적은 부담으로 반도체 분야의 인증서를 부여해 관련 인재를 육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난 4월 제주지역혁신플랫폼의 JOY 융합대학에서는 융합대학에 대한 홍보의 일환으로 혁신 교수법 및 비교과 우수사례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는 융합대학에 참여한 교수와 재학생에게 해당 교육 과정에 대한 혁신 사례를 알리는 행사였다. 이에 대해 김대영 제주대 교수(교육학과)는 "성과 공유회는 JOY융합대학을 교수와 학생 모두에게 홍보하는 계기가 됐다"는 소감을 말했다.

학생들이 특정 대학을 선호해 해당 대학에 학생 수요가 치중될 수 있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실제 DSC융합대학(대전·세종·충남)에서는 총 24개 대학이 참여했으나, 18개 대학의 학생들만이 융합대학 과정에 지원했다. 황수정 건양대 교수(교육학과)는 "융합대학 참여 대학 간 경쟁 심화 및 이해관계 충돌로 선호 대학 편중이 심화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융합대학, 이제는 '융합'할 때!=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소속 대학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들은 단순히 대학 연합이 아닌 물리적 '합체'로 융합대학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주장을 한 김대종 교수는 "융합대학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대학들이 각 대학의 인재와 물적 자원을 교류하고 공유하는 물리적 합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한편, 융합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가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교원 확보율 ▲양적 지표 중심 대학 평가 ▲온라인 강의 상한제 등의 규제에 묶여 융합대학 체제가 실패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황수정 교수는 "대학 운영은 규제 이외에도 대학 평가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는 교육환경에 발맞춰 평가 관련 혁신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손유민 기자 sym0727@yu.ac.kr
하진영 기자 hjy1126@yu.ac.kr
전태영 준기자 jty1226@yu.ac.kr

YU 융합대학, 학문과 현실을 연결하다

현재 우리 대학교는 ▲기업 ▲대학 ▲지자체가 연합한 DGM대구경북혁신대학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DGM대구경북혁신대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수와 학생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본교 융합대학 프로그램을 이끄는 곽종욱 교수

현재 본교는 DGM대구경북혁신대학의 일원입니다. 우리 대학교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융합대학 체제는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타 대학의 전공을, 타 대학교 학생들이 본교 전공을 들을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모델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학생이 우리 대학교와 함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어 참여하게 됐어요.

우리 대학교는 DGM대구경북혁신대학에서 어떤 활동을 진행하고 있나요?

우리 대학교는 미래형 자동차 사업단 b 트랙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는 ▲모빌리티 디지털 전환 ▲전기차 융합 부품 ▲친환경 배터리 소재 등의 트랙으로 나뉘죠. 해당 교과 프로그램은 블렌디드 방식과 현장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더불어 기업 탐방, 취업 캠프와 같은 비교과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어요.

DGM대구경북혁신대학에는 여러 트랙이 있는데, 각 트랙의 수강 대상은 누구인가요?

각 트랙의 대상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학생들의 전공 분야와 관계없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트랙을 신청하면 되죠.

DGM대구경북혁신대학 참여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먼저 대학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상호 성장의 기회를 얻죠. 또한 학생의 경우, 대학의 협업으로 형성된 교육과정 속 질 높은 교육을 경험하고 취업 시장의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어요.

DGM대구경북혁신대학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현재 진행 중인 DGM대구경북혁신대학 프로그램이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어요. 또한 내년에는 융합대학의 새로운 모델이 운영될 예정이죠. 학비 보조금 성격의 장학금 지원 등 많은 혜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 많은 학생이 참여하길 바랍니다.

곽종욱 교수(컴퓨터학부)

DGM대구경북혁신대학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최근 인공지능 분야의 전망이 밝아 전문적으로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던 중 DGM대구경북혁신대학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됐죠. 이에 장학금을 받으면서 전공 관련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AI/SW 트랙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DGM대구경북혁신대학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받은 혜택은 무엇입니까?

제가 참가한 AI/SW 트랙에서는 자격증 프로그램, 자소서 컨설팅 등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자격증 프로그램의 경우 특강을 듣고 자격증시험을 치렀기에 공부에 투자할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좋았죠.

DGM대구경북혁신대학 프로그램에서 경험한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어떤 것인가요?

저는 '2024 Japen IT Week 나고야'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본 정보통신 산업의 최신 동향을 파악한 것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특히 AI를 이용한 자동화 서비스와 ChatGPT나 Gemini와 같은 생성형 AI가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죠.

DGM대구경북혁신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듣는 수업이라 야간에 진행이 된 점이 가장 아쉬워요. 본교 소속 학생은 필수로 대면 참가를 해야 했는데, 긴 공강 시간과 늦은 하교 시간이 통학생의 입장에서 부담되기도 했죠.

DGM대구경북혁신대학 프로그램 등의 융합대학 운영에 대해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우수 기업과의 연계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 실무 및 실습 위주의 수업 환경이 제공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서은설 씨(컴퓨터공3)

two hearts that beat as one

텍스트, HIP해!

읽고 쓰는 행위가 당연하지 않은 시대, 사람들이 '텍스트'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의 텍스트는 단순한 글을 의미했으며, 이를 이용한 문화생활은 흔치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은 다양한 경로에서 텍스트와 관련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 'HIP'한 것을 좋아하는 젊은 세대는 어떤 방식으로 텍스트를 'HIP'하게 즐기고 있을까?

읽고 쓰는 나 멋지죠?

서울국제도서전 현장

최근 독서 관련 대중문화 발달, 텍스트 중심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텍스트 힙(Text Hip)'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이는 독서와 기록 등 텍스트와 관련한 행위를 멋지다고 느끼는 트렌드를 이르는 말이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퍼져가는 해당 트렌드는 텍스트를 읽고 쓰는 것에서 나아가 관련 콘텐츠를 소비하고 즐기는 양상이다.

요즘은 책 이렇게 읽어!=최근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젊은 세대의 독서에 대한 관심이 향상됐음을 알 수 있다. 지난 4월 '2023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는 20대 독서율이 74.5%로 성인 독서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이들은 종이책뿐만 아니라 ▲북튜브(책 유튜브) ▲오디오 북 ▲전자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책을 읽는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전자책 이용률은 58.3%로, 사상 처음으로 종이책 이용률을 넘었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는 "독서 방식의 변화는 디지털 매체가 영향을 끼치는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 대학교는 학생들의 독서 방식에 따라 지난 2월 구독형 전자책(eBook)인 YES24 크레마클럽과 제휴를 맺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석주 학술정보팀 담당자는 "학생들이 전자책 서비스를 통해 꾸준히 책을 가까이하다 보면 점차 양질의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이색 공간에서 피어나는 텍스트=청년층은 독서를 일종의 놀이문화로 인식한다. 랭키파이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개최된 '2024 서울국제도서전'의 전체 방문객 중 20·30세대의 비중이 73%에 달했다. 이들은 출판사 전시 공간의 굿즈를 사고, 인증 사진을 찍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도서전을 즐겼다. 이에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젊은 층은 SNS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책을 접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텍스트를 주제로 한 이색 공간 또한 인기를 끌고 있다. 책을 읽으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인 책 바(Bar), 편지를 써 타인의 편지와 교환하는 카페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조혁진 책 바 수르채그 대표는 "책 바를 방문한 손님의 주 연령층은 20·30대"라며 "위스키 한 잔과 함께 편지 쓰기와 독서를 즐기며 텍스트에 대한 신선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텍스트 플랫폼으로 나누는 일상=텍스트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과 SNS 발달로 인해 텍스트 관련 플랫폼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이에 텍스트를 통해 소통하는 Thread(이하 스레드) 플랫폼이 청년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모바일 인덱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6월 스레드의 국내 *MAU는 2,643,74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대가 39.8%로 가장 높았다. 더불어 젊은 층 사이에서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는 '온라인 일기장'으로 여겨진다. 평소 네이버 블로그로 일상을 기록하는 한서진 씨(정치외교1)는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온라인에 공유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책 바에서 독서를 즐기는 모습
(사진 제공='수르채그' SNS 계정)

텍스트 힙, 좋게 봐주세요!=텍스트 힙 트렌드로 인해 SNS에 자신의 독서 일상을 공유하고, 글로써 사람들과 소통하는 문화가 확장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텍스트 힙 문화가 과시적이라며 부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더불어 텍스트 힙을 무분별하게 따라 하거나 상품화하는 현상을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는 텍스트 힙 문화가 과시적으로 보일지라도 텍스트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독서 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텍스트 힙 문화를 지나치게 과시적인 행위로 여기기보단 본질과 맥락에 맞게 이를 긍정적으로 확산시킬 방향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MAU: 한 달 동안 서비스를 이용한 순수한 이용자 수를 나타내는 지표**

김규리 기자 kgl0414@yu.ac.kr
차승효 기자 csh0524@yu.ac.kr
장윤아 준기자 jya0216@yu.ac.kr
한지혜 준기자 hjh1019@yu.ac.kr

#왓츠유얼라이크

챌린지 이벤트에 참여한 독자의 책장

최근 #북톡(booktok) #북스타그램 등 SNS 인증과 같은 방식으로 책을 향유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이에 착안해 '#왓츠인마이책장 챌린지'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죠. 해당 챌린지는 서로의 책장을 보여주며 독서 취향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X(트위터)에서 많은 릴레이 인증이 이어졌답니다. 그중 서점보다 더 서점 같은 서가, 3중 슬라이드 책장을 사용하는 독서광인들의 책장이 눈길을 끌었어요. 또 앨범, 피규어 등 아끼는 무언가로 가득 찬 '책 없는 책장'도 인상 깊었죠.

해당 챌린지에 참여한 독자들은 본인의 책장을 살피면서 몰랐던 취향을 알아가고, 타인의 책장을 통해 다양한 독서 세계에 도전해 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책과 가깝지 않았던 사람도 새롭게 독서의 동기를 얻을 수 있죠. 특히나 독자들은 '#왓츠인마이책장' 해시태그를 통해 본인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비슷한 취향의 친구를 찾아요. 서로의 독서 장르를 자연스럽게 밝힐 수 있는 매개체로 역할 한 거죠. 다양한 책장 공유 사례들은 독서가 하나의 즐거운 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걸 시사해요. 이와 같이 독서는 더 이상 지루한 활동이 아닌 따라 하고 싶은 근사한 문화로 여겨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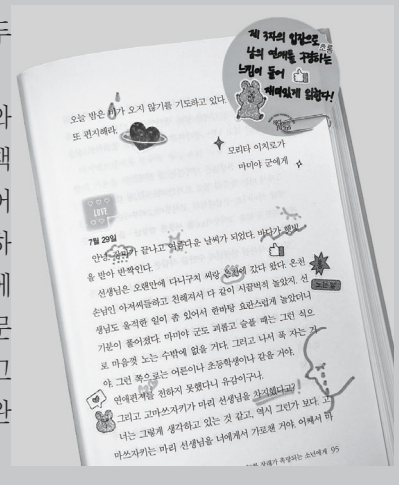
젊은 층에 텍스트 힙 트렌드와 텍스트 콘텐츠는 '나만의 취향과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으로 통해요. 챌린지 이벤트 또한 책장으로 관심 있는 영역과 분야를 공유하기에 텍스트 힙과 동일한 지점을 공유하죠. 많은 사람이 책과 독서를 쉽고 재미있는 것으로 인식하면 좋겠어요. 일상에서 독서를 지속할 방법은 각양각색이에요. 꼭 책 한 권을 완독하는 일만이 독서가 아니라, 감명 깊은 한 줄을 필사하거나 멋진 책표지를 SNS에 공유하는 등 책을 즐기는 모든 활동이 독서로 자리 잡았으면 해요. 이번 #왓츠인마이책장 챌린지를 통해 텍스트 힙 현상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독서 문화로 나아가기를 바라요.

박숙경 예스24 브랜드 마케팅팀 과장

텍스트 놀이 속으로 Zoom in!

필자는 최근 유행하는 #왓츠인마이책장에 참여해 나의 독서 취향을 공유해 보는 경험을 했다. 우선 책장의 사진을 찍기 위해 책장을 정리했다. 오른쪽부터 판타지 소설을 배치했으며, ▲만화 ▲수필 ▲인문학 순서로 정리했다. 재미와 궁금증에 이끌려 한 권, 두 권 구입한 책들이 이젠 책장을 가득 채웠다. 구입하고 읽지 않은 책과 읽다가 포기한 책들도 있지만 언젠가 모두 읽으리라 다짐한다.

책들이 쌓일수록 나의 지혜와 지식이 넓어지는 것을 느낀다. 책을 정리한 후 몇 가지의 피규어를 장식했다. 책장은 책을 보관하는 용도를 넘어 방의 인테리어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책들과 피규어를 장식하고 나니 보기 좋은 책장 한 개가 완성됐다.



얼마 전 SNS를 통해 서울국제도서전 문학동네 부스에서 진행한 '북꾸' 관련 게시물을 보게 됐다. 이는 책 위에 자신만의 취향으로 스티커를 붙이고 메모지에 좋아하는 문장을 쓰는 등 독서하며 책을 꾸미는 문화이다.

이에 흥미를 느낀 나는 집에 있던 꾸미기 용품을 꺼냈다. 책을 한 줄 한 줄 읽으며 등장인물의 감정이 표현된 부분에는 스티커를 붙이고, 메모지 속에 책을 읽고 느낀 점을 기록했다. 책을 꾸미며 읽다 보니 주인공들의 감정선을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었다. 사랑에 빠진 주인공의 떨리는 감정, 친구들과 함께 놀며 행복했던 감정 등 인물들의 감정이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다. 더불어 인물의 관계성도 더 잘 파악할 수 있었다.

독서에 흥미를 잃은 나에게 책 꾸미기는 새로운 재미로 다가왔다. 이에 더해 나만의 예쁜 책 한 권이 탄생한 기분이 들어 뿌듯했다.

책을 재밌게 읽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권장하고 싶다.

천마로를 거닌 사람

성연재

연합뉴스 여행 전문 기자
(행정학과 97졸)

1997년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부문 수상
2003년 이라크 종군기자
2009년 '잇츠 캠핑: 초보캠퍼를 위한 캠핑가이드 캠핑지 100선' 발간(YES24 14주 연속 여행부문 1위)
2009년 낚시채널 FTV '프라이데이' 고정출연
2009~2011년 네이버 캠핑 부문 파워블로거
2010년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전문보도부문 수상
2021년 '대한민국 오지여행' 출간 (YES24 2주 연속 여행부문 1위)

'여'행의 '행'복을 소개하는 기자, 성연재 동문

성연재 동문의 이라크 종군 기자 시절

'여행은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잘 알려진 예방약이자 치료제이며 동시에 회복제이다.' 이는 여행과 관련해 가장 잘 알려진 말 중 하나다. 성연재 여행 전문 기자(행정학과 97졸)는 여행 기사와 도서를 작성하며, 바쁜 현대 사회 속 독자들에게 '여행'을 선물한다. 이에 그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우리 대학교 재학 시절 어떤 학생이셨나요?

영대신문 기자 활동을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어요. 사실 그 당시 저는 학점 관리를 잘 못했고, 거의 학보사에 근무하는 직장인 느낌이었죠. 그래서 공부보다는 취재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신문사 생활에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영대신문 기자 시절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인가요?

그 당시에는 시위가 매우 많았어요. 시위를 취재하다가 경찰에게 잡혀서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루 자고 풀려났던 기억이 나요.

영대신문 활동이 선배님께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영대신문에서의 실무 경험들이 도움됐어요.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보통 경험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영대신문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언론사, 특히 신문사 생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이에 기자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고, 실제로도 많은 도움이 됐죠.

선배님께서는 현재 연합뉴스 여행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행 전문 기자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원래 여행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번 돈으로 배낭여행을 자주 갔죠.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로 제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사내외에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 덕분에 제가 재직 중인 회사 경영진에게 여행 전문 기자를 제안받아 시작하게 됐죠.

여행 전문 기자로서 가진 본인만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여행 트렌드를 빨리 읽는 것이 저만의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덕분에 제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 모두 베스트셀러가 됐죠. 두 책 모두 캠핑에 관한 책이었는데, 앞으로 변화할 캠핑 문화에 대한 내용을 담았어요. 변화하는 트렌드를 빨리 읽고 알려준 것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즉, 트렌드를 빨리 읽고 서민들이 윤택한 생활을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을 빠르게 제시하는 것이 제 강점인 것 같아요.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사를 쓰려합니다'라는 문구를 연합뉴스 프로필에 쓰셨습니다. 해당 문구를 프로필에 삽입하게 된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여러 가지 여행 방법들을 소개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썼어요. 우리 주변 작은 여행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평소 느끼지 못했던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죠.

여행 기사 소재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소재를 기사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난 2021년부터 '성연재의 길따라 멋따라'라는 칼럼을 작성해 오셨습니다. 작성한 칼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연재의 길따라 멋따라'는 제 노하우가 녹아 있는 코너인데,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썼던 칼럼이 기억나네요. 해당 칼럼은 기내에 돈을 들고 타는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사람들이 현금을 비행기 위 짐칸에 보관했다가 도난당하는 일이 매우 잦았죠. 그래서 이러한 도난 사고들을 조심하라는 내용의 칼럼을 작성했어요.

가을철에 특히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최근에 방문했던 울산을 추천하고 싶어요. 사실 울산하면 ▲공업도시 ▲산업도시 ▲자동차 ▲선박 같은 것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울산에 즐길 것들이 넘쳐나요. 실제로 울산은 88올림픽 전까지 고래잡이의 본거지였죠. 우리나라 수만 년 전부터 조상들이 고래잡이를 했던 곳이라 울산에 가면 고래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즐길 수 있어서 추천해요. 그리고 울산 '장생포 문화창고'에 방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문화와 관련된 전시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져요.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전시회보다 '장생포 문화창고'에서 더 좋은 전시들을 많이 봤다고 할 정도로 멋진 곳이에요.

지난 2018년 출판된 책 '개와 떠나는 대한민국'은 다양한 여행지, 맛집 등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곳'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실생활에서 겪어보고 괜찮은 곳들 위주로 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책 '개와 떠나는 대한민국'에서도 반려견을 데리고 6~7년 동안 제가 직접 다닌 여행지들을 소개했어요.

▲LETS GO CAMPING(대한민국 캠핑장 가이드 317) ▲CAMPING EUROPE ▲대한민국 오지 캠핑장 101(전국의 숨겨진 오지 캠핑장 완벽 가이드) 등 캠핑 관련 도서도 집필하셨습니다. 캠핑의 매력에 빠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원래 낚시를 좋아했어요. 이에 낚시하러 다니면서 주로 펜션에서 숙박했죠. 그런데 저와 달리 물 바로 앞에서 텐트를 치고 낚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자연을 더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이라크 종군 기자 시절의 성연재 동문

성연재 동문의 취재 모습

부안에서 일몰을 보는 성연재 동문

에 그분들을 보고 캠핑을 시작하게 됐어요. 캠핑을 시작해 보니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이 진정한 삶이라는 걸 느끼게 됐고 다양한 책을 썼죠.

가장 소개하고 싶은 캠핑지는 어디인가요?

국내 캠핑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해봤을 테니까 해외 캠핑지를 소개할게요. 저는 이제 일본 캠핑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여행사는 현재 약 110년 정도의 역사가 있죠. 역사가 깊은 만큼 일본 캠핑지는 굉장히 잘 가꿔져 있고, 전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곳이 많아요. 게다가 좋은 캠핑지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어서 일본 캠핑을 추천해요.

오지 여행을 자주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 여행을 다니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청정한 물에서만 할 수 있는 프라이 낚시를 주로 즐겨요. 프라이 낚시를 하다 보니 1급수가 있는 오지를 많이 찾아갔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우리나라에서 그 누구보다 오지를 많이 알게 됐어요.

지난 2021년 책 '대한민국 오지여행'을 발간하셨습니다. 이 책을 발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여행 전문가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정보를 던져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오지여행'을 발간했을 때는 코로나19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접촉을 피해 쉴 만한 곳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오지여행'이란 책을 쓰게 됐죠.

오지 여행은 다른 여행과 어떤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지 여행은 거리가 멀고, 가는 길이 좀 복잡해요. 하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오지의 대부분은 차로 방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생각보다 쉽게 갈 수 있으니, 겁먹지 않아도 돼요.

오지 여행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흐멧 볼랏 터키공항 회장과 셀카를 남기는 모습

오지로 갈수록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일본인 가이드는 알바니아 여행에서 만났던 마을 사람들에게 과일 한 박스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인 가이드는 고민 후에 그들에게 돈을 건네줬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 방문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준 것이라고 말하면서 돈을 돌려줬죠. 일본인 가이드는 제게 해당 일에 대해 정말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이러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게 오지 여행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지 여행 중 돌발상황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돌발상황이 있었으며,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납치당했던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인도네시아 길리섬에 택시가 없어서 지프차를 탔는데, 기사님이 제가 가야 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납치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차 속도가 느려진 틈을 타 차 문을 열고 그냥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리고 난 후, 차가 저를 향해 후진하며 따라오길래 살려달라고 빌었더니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가버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경험이었어요.

오지 여행을 하며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많은 문화를 배우는 등 의미 깊은 경험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기억은 무엇인가요?

조지아의 우쉬굴리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그곳에서 여행객의 사진을 찍어줬는데, 알고 보니 조지아의 왕자 부부였어요. 그 후 그들은 제게 같이 여행을 다니자는 제안을 했어요. 저는 보통 사전에 스케줄을 짜지 않고 여행하는 경우가 많아 조지아 왕자 부부와 함께 3박4일 여행을 했죠. 그때 굉장히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곳들을 많이 가봤기에 기억에 남아요.

오지 여행을 떠나고 싶지만 두려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오지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시골로 나가면 그곳이 오지니까, 그런 곳부터 가보는 걸 추천해요. 우선 그런 장소에 익숙해지고, 참맛을 느끼면 자연스레 오지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을 거예요.

여행 전문 기자로 일하시며 겪은 고충은 무엇인가요?

여행 전문 기자로 일하면서 여행 관광청의 초청을 받은 경험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다른 기자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러한 점이 여행 전문 기자로 일하면서 겪은 고충이죠.

여행 전문 기자로서 가장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코로나19 직후 많은 나라에서 제한적으로 여행객들을 받았어요. 당시 한국과 일본이 여행객들에게 나라를 개방해야 한다는 기사를 작성했는데, 독자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이에 기사의 반응을 모아서 일본 정부 관광국에 보냈고, 그 후에 일본이 여행지를 개방했죠. 제 기사를 통해 일본 정부가 빨리 일본 여행을 개방한 것 같아 기뻤어요. 이를 시작으로 차츰 다른 여행지들도 뒤이어 개방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성취감을 느꼈죠.

선배님께 '영대신문'은 어떤 의미인가요?

영대신문은 여행 기자를 하는 데에 발판이 된 소중한 존재죠. 영대신문 활동 당시에 취재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기자로서의 자양분이 됐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영남대학교 동문 중에는 지방대학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서울에는 영남대 언론회가 있는데, 그곳에선 정치계 인사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죠. 이러한 활동은 다른 대학교의 일반적인 졸업생들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일 거예요. 이렇듯 우리 대학교 출신이 서울권 대학보다 더 나은 부분도 있어요. 영남대 동문들은 끈끈한 정을 자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실력을 갖춘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곽려원 기자 krw0503@yu.ac.kr
변정섭 기자 bjs0510@yu.ac.kr
이하진 준기자 lhj0826@yu.ac.kr

사설

YU 음식 이데아

지난 학기 어느 날이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를 피해 중앙도서관에 들어서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수많은 학생이 의자에 앉거나, 의자 팔걸이에 걸터앉거나, 혹은 선 채로 바깥 비 구경을 하고 있었다. 문을 밀친 나는 이 의도치 않은 환대에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급히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밖의 빗줄기가 세차졌다. 학생들의 얼굴은 푸릇푸릇 싱그럽고, 비 따위는 상관없다는 투였다. 타과 학생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학교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흥분된 표정이었다. 소나기가 만들어낸 일시적 파라다이스, 하나의 젊음의 연대가 중앙도서관 홀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지난 코로나 기간 우리는 얼마나 외로웠던가. 사회적 거리두기는 팬데믹이 끝나고도 우리들 사이에 커다란 심리적 맨홀을 파놓았다. 그동안 학생들은 서로의 등을 보며 강의실에 앉아 있었고, 혼밥을 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연못을 파두면 개구리가 모여들듯이 중앙도서관에 의자가 놓임으로써 뒷골목을 헤매던 이들이 가까이서 서로의 존재를, 숨결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에게 결여돼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조금 느껴져 왔다. 우리 모두에게 학교생활에서 뭔가 광장적인 요소가 더 필요했었던 것일까.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 욕망에 속한다.

학생들이 쉽게 구성원들과 접촉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소로 식당이 있다. 대학의 음식은 학생들의 젊은 뇌와 신체를 자극하여, 캠퍼스를 다이내믹하게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 수 있는 궁극의 에너지원이다. 그리고 대학의 구내식당은 학생들이 따뜻한 '공공성'을 배울 수 있는 일상의 공간이자, 학과별 경계를 넘어선 사귐과 토론의 장소이기도 하다. 지금 학교에는 자기 역할을 기다리며 비어 있는 식당들이 더러 있다. 이와 같은 유휴공간들을 제대로 살려낼 필요가 있다. 굳이 실내공간이 아니더라도 하버드 교정에도 있는 시간제 푸드 트럭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지 않나. 맛있고, 영양가 있고, 값싼 음식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이, 대학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겠는가. 대학이 여전히 이 시대의 헤테로토피아가 아니라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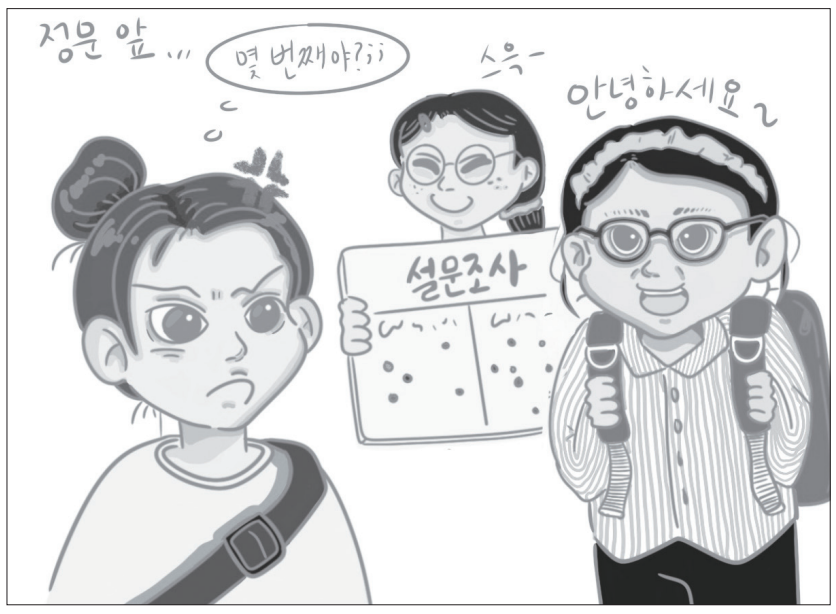
처음으로 대학에서 '천 원의 아침밥' 제도가 시행됐을 때, 뭔가 발설하지 못했던 내면의 꿈이 현실로 나타난 것만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었다. 한국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게 된 시점은 가파르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가능성이 열린 시점이기도 했다. 기본적인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카데믹하고, 미래지향적인 대학의 이상도 모래 위에 지은 성이 될 수 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성장이 가능하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누군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누군가는 가장 단순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실현의 첫발을 내디딤으로써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오지 않았던가.

영남대가 세계를 향해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 먼저 광장으로서의 식당에 대한 상상력부터 발휘해 보는 것은 어떨까. 특별히 영남대는 세계 그 어느 대학보다 풍부한 캠퍼스 음식으로 유명해진다면 어떨까. K-food의 하위 범주로 YU C-food(Campus food)를 구상해 보는 미니멀리스트들이 앞으로 곳곳에서 출현해 주기를, 고대해 본다.

***퀀텀 점프: 낮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양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갈 때, 계단 모양으로 뛰어오르는 현상**

만평

종교의 자유? 전도의 자유?



영대신문이 학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학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과 부조리를 개선하고 싶다면, 취재를 통해 시원하게 밝히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기자들을 찾아주십시오. 글로 말하고 싶은 바를 나타내고자 할 때도 영대신문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고견(高見)을 기다리겠습니다. 영대신문에 대한 학우 여러분들의 따끔한 질책과 충고도 좋습니다. 이 역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항상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진정한 소통의 정신을 구현하고 학우 여러분들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는 우리 대학교의 공기(公器)가 되겠습니다.

영대신문을 읽고

축제는 끝나고, 다시 새로운 학기로

이진솔
국어국문4

1684호는 여러 교내 소식과 심층 보도 및 인터뷰 등을 담아냈다. 대동제의 소식으로 신문의 문을 열고 마지막 면에 대동제의 사진을 담은 점이 인상 깊었다.

1면은 '대동제'와 '글로컬 대학30선정'이라는 학교의 가장 중요한 행사와 소식을 배치했다. 대학의 경사를 우선 배치해 현재 교내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을 곧장 파악할 수 있게 했다.

2면에서는 ▲에코업혁신융합대학 사업 ▲Born to be a K-POP Star 경연대회 ▲밀양 아리랑 협약 체결 등의 소식은 재학생이 미처 알지 못했던 소식을 알 수 있었기에, 교내 소식을 알리는 학보의 기능에 충실했다. 하단에 위치한 '2026학년도 입학전형 일부 변경' 소식은 적절한 표를 병기해 더욱 쉽게 변경 사항을 파악 할 수 있었지만 재학생보다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필요한 기사라고 생각했다.

3면은 유학생 체육대회 개최 소식과 전국장사씨름대회 2연패 소식 등의 각종 교내 소식을 알리는 기사들로 구성되었다. 이 또한 학보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했다.

4면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을 중점적으로 다룬 심층 보도는 소재와 내용이 흥미로워 눈길을 끌었다. 다만, 복지단체의 관계자와 진행한 인터뷰가 연속으로 배치돼 다소 중복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정작 기사에서 다루는 '가족돌봄청년' 당사자와의 인터뷰는 실리지 않아 전체적인 구성이 아쉽다.

5면에서는 반려동물 문화와 관련된 기사들이 배치됐다. 반려동물 시장이 상당히 성장한 현시점에서 이목을 끈다.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과 동물복지를 다룬 기사 내용이 알찼다. 또한 구성과 짜임새가 전체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지면이었다.

6면과 7면에서는 〈천마로를 거닌 사람〉 코너를 통해 정동락 대가야박물관 장과의 심층 인터뷰가 실렸다. 기성 언론은 물론 뉴미디어에서도 자주 다루지 않는 박물관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기에 다소 참신했고, 선배 졸업생의 이야기이기에 더욱 눈길을 끌 수 있었다.

8면에서는 각종 사설이 실렸다. 다양한 학우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공교롭게도 소음 공해에 관한 사설과 만평이 동시에 배치돼 학교 근처 거주민들의 고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9면에서는 〈오늘의 학과는〉 코너를 통해 신설 학과인 '글로벌통번역학부'와 '영어통번역전공'을 소개했다. 신설학과이기에 해당 학과의 개설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던 재학생들이 해당 기사를 통해 학과 신설 소식을 알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코너의 연재 취지에 충실했다고 생각된다.

10면과 11면에서는 영대신문 61기 신입 기자 10인의 포부를 담았다. 얼굴과 함께 내건 포부이니만큼 앞으로 건강한 기자 생활을 이어나가길 독자의 입장에서 바란다.

12면에서는 '2024 대동제'의 여러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냈다. 대동제의 여러 중요 순간들을 포착해 대동제 당시의 활기찬 공기와 추억들을 생동감 있게 담아냈다.

3분 칼럼

AI 시대에서 살아남기

오픈AI에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ChatGPT가 출시된 지도 어느덧 2년이 됐다. 처음 ChatGPT가 출시됐을 때인 2년 전과 현재를 비교하면 강산이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스타트업부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까지 AI에 대한 투자를 계속 이어 가고 있다. 아직은 뚜렷한 수익구조가 없는 AI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치킨게임이 되어가고 있는 현재 AI는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우선 대학생들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 대학생들은 ChatGPT를 이용해 자료를 찾거나 모르는 부분을 검색하는 등 유용하게 사용했다. 일부 학생들은 ChatGPT로 과제를 작성하거나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기도 했다. 심지어는 개발자만의 영역인 줄만 알았던 코딩도 가능하게 됐다. ChatGPT의 출시는 대학생인 필자가 느끼기에 혁명에 가까웠다. 최근에는 가수들의 목소리로 AI 커버곡을 부른다거나 AI를 이용해 영상 제작, 웹툰 제작, 소설 쓰기 등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불과 2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AI로 인해 많은 직업이 대체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엔 AI의 발달로 일자리가 대체된다는 점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AI는 그저 기계, 로봇에 불과하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렇다면 AI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물음에 정답은 없지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말처럼 우리도 AI를 이용하면 된다. AI를 활용해 코딩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 작곡을 해 나만의 노래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데 익숙한 세대들은 어려운 편집 기술을 배우기보다는 AI로 영상을 편집해 AI 시대를 즐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한다면 '코딩 비전공자라 프로그램 개발을 못 한다'는 말은 과거의 이야기로 들릴 것이다.

AI를 이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들의 특성을 키우는 데도 힘을 쓸 필요가 있다. 인간 고유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창의력, 유연성과 같은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당 특성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특성은 협력, 공감 능력과 같은 특성이다. 해당 특성과 이어지는 직업인 서비스직은 AI가 쉽게 따라 할 수 없으며, 대체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AI에 대체될 걱정을 하기보다는 AI를 이용하거나 AI와 차별화된 특성을 키워보는 건 어떨까. 머지않은 미래에는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 대신 AI가 직접 취재하며 글을 작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필자는 AI와 다른 특성을 가졌기에 필자만의 글을 필자만의 방식으로 써 내려갈 것이다.

결론적으로 AI의 발전과 일자리 대체를 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걱정만 하기보다는 이를 활용할 방법을 고민할 때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읽은 이 글을 AI가 작성했다고 한다면, 독자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승민 편집·문화부장

우리말 check!

'우리말 check!' 고정란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일본어식 표현을 쓰기 좋은 우리말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 순댓국에 다대기 좀 많이 넣어 주세요

'다대기(たたき)'라는 단어는 일본식 언어를 사용한 표현입니다. '다대기' 대신 '다진 양념'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봅시다.

- 날도 더운데 나시 입어야지

'나시(そでなし)'이라는 표현은 일본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는 우리식 표현으로 '민소매'라고 다듬을 수 있습니다.

이하진 준기자 lhj0826@yu.ac.kr

사업단에서 미래를!

당신을 수소 전문가로 만들 수소산업 융복합 인력양성 사업단

우리 대학교에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단이 존재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사업단에서 미래를!' 고정란을 통해 학생들에게 ▲이공계열 ▲인문계열 ▲창업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단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1685호에서는 수소에너지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수소산업 융복합 인력양성 사업단'의 김재홍 수소산업융복합인력양성사업단장(화학공학부)를 만나봤다.

김재홍 수소산업융복합인력양성사업단장(화학공학부)

'수소산업 융복합 인력양성사업단 2차 워크숍' 참가자들의 모습

수소산업 융복합 인력양성 사업단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수소산업 융복합 인력양성 사업단은 지난 2020년 국내 최초로 수소 분야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산업 융복합 인력양성산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어요. 선정 이후 에너지산업의 실무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진행하시나요?

학내 구성원들이 사업단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학생 중심 인력양성 과정이 있죠. 이는 학생들의 사업단 프로그램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또, 지역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도 진행 중이죠. 지난 2월 울진군이 교육 발전특구 선도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을 때, 울진군을 직접 방문해 수소 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 기회도 마련했어요.

현재 사업단에서는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먼저, '산학협력 및 취업 활성화' 사업을 통해 산학 연계 R&D 프로젝트, 인턴십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중, 'R&D 프로젝트 운영'으로 학생들이 매년 10여 개 이상의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죠.

사업단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가요?

교육과정 외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이점인 것 같아요. 학생들은 사업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중심의 교육 및 연구에서 나아가 더욱 실무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죠.

사업단 가입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수소 산업 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이에 해당 산업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인재를 필요로 하게 될 거예요. 이렇듯 현재 성장 중인 시장 상황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수소 사업단에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전태영 준기자 jty1226@yu.ac.kr

나도 칼럼니스트

예술과 영감

김민수
한문교육2·휴

예술은 인간이 영감을 바탕으로 담아낸 세계이다. 예술에 있어 영감의 무수한 색조를 더하고 빼기를 반복하는 작업은 피할 수 없는 작업이다.

과연 '예술'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예술은 영어로 'ART'다. 먼저, ART의 어원을 찾아보면 라틴어 'ARS'에서 나왔다. ARS는 'TECHNE'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한다. TECHNE는 TECHNIC의 어원으로 본래의 의미는 기술과 규칙을 말한다. 이는 곧 예술과 기술을 구분하는 경계가 모호하다는 의미이다. 두 단어의 어원이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대에서는 오늘날의 예술을 TECHNE라는 개념으로 바라보지 않고, 지식을 활용한 모든 활동의 산물을 TECHNE으로 보았다. 그런 점에서 TECHNE는 영혼과 영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결과물과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예술의 영역에 포함되는 활동을 고대인들은 다른 범주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지혜로운 고대인들은 오늘날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술을 'MUSIKE'라고 따로 명명했다.

이처럼 TECHNE가 아닌 MUSIKE에서 영감이 필수 요소이다. 예술가들의 번뜩이는 영감 없이 아름다운 결속력을 가진 작품이 나오기는 드물다. ▲독창적인 퍼포먼스 ▲상황에 맞지 않는 개연성 ▲의도되지 않은 상징 등 예술은 원래 실수에서 나오는 표현방식의 연출로서, 접하는 대상으로 하여금 계획에 없던 경험을 제공하며 파격적인 감동을 주기도 한다. 하나의 번쩍이는 아이디어 세포가 무수한 가능성의 결과인 예술을 응집하고 완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뇌로 포장된 산물을 대중에게 전율하도록 선물한다. 영감이 창작이라는 과정을 통해 형상화된 예술이 다시 영감을 자극한다. 예술가들은 살아가면서 겪는 사소한 일에도 예리하게 반응한다. 그건 예리함이 극대화되면서 심미적 스펙트럼을 만들어낸다. 영감은 이같이 예술로 승화된다.

영감의 청각적 산물인 음악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다. 대중들은 대부분 친숙한 멜로디와 리듬에 익숙해지고 귀도 마취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튜브 쇼츠와 같은 플랫폼이 대중화되면서 짧은 곡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매체에 따른 분량이 짧아지고, 정해짐에 따라 사람들의 영감 또한 자극적이고 '획일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아티스트들이 '양산형' 노래를 대폭 찍어내는 현상도 생기고 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영감의 수준 또한 극명하게 차이 나는 곡도 존재한다. 심지어, 무책임할 정도로 괴상하며 기이한 노래들이 MZ세대에게 각광받고 있다. 이런 현상이 심해진다면, 대중예술을 아우르는 영감의 스펙트럼은 늘어난 예술품의 숫자와 상반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영봉

당신은 '빅 브라더'를 사랑하는가?

"Don't wanna be an American idiot.… (중략) In television dreams of tomorrow. We're not ones who're meant to follow. For that's enough to argue."

미국 록 밴드 Green Day의 'American Idiot' 가사 중 일부이다. 이 곡에서 Green Day는 언론에 선동당하는 미국인의 모습을 노래하며, 당시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당신은 '언론'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필자가 생각하는 언론은 대중매체를 통해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있으며, 여론을 만들어내는 가장 공식적인 장이다. 이를 통해 생성된 목소리는 국민의 생각과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준다.

더불어 현대에 들어 언론은 '제4 권력'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는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진 삼권분립 체제에, 이들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언론의 역할이 강조되며 생긴 말이다. 이처럼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실 확인에 기반한 정보를 생생히 보도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지난 5월 국경없는의사회의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를 기록하며, 지난해 대비 15단계 하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은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여러 이해관계로 인해 언론인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며 "한국 언론인은 종종 온라인 괴롭힘의 대상이 되지만 이에 대한 보호는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년간 MBC는 불공정 보도로 국민에게 지탄받았다. 이에 MBC 직원들은 MBC 관리 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교체부터 시작하며 개혁해야 한다고 믿었다. MBC 직원들은 이사들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자 변화의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그들은 임기 만료 후에도 자리에 계속 있겠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기대를 무너뜨렸다. 이처럼 현재까지도 기득권 세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언론의 자유와 의무 준수, 심지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이는 비단 기성 언론만의 문제는 아니다. 과거 영대신문을 비롯한 많은 학보사는 외부의 편집권 침해로 백지 발행과 발간을 연기했으며, 이는 아직도 어디선가는 현재진행형이다. 독자에게 현장감 있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학보사 기자들의 역할이나, 이를 위해서는 학내 구성원의 협조도 절실하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는 절대 권력자 '빅 브라더'가 등장한다. 책 속에서 빅 브라더는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사랑받을 수 있으며,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존재이다. 또한 그는 텔레스크린과 마이크로폰 등을 이용해 대중의 행동과 생각을 감시하고 사상을 세뇌한다.

소설 속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빅 브라더가 만든 전체주의적 사회에 반감을 품으며, 그의 절대 권력에 투항한다. 윈스턴 스미스가 빅 브라더에 반역을 꾀하다 체포될 당시, 그는 "나는 빅 브라더를 증오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진 고문과 세뇌를 당한 후, 윈스턴 스미스는 결국 "나는 빅 브라더를 사랑한다"고 답하며 그에 굴복한다. 이는 빅 브라더에게 완전히 세뇌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착각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소름 끼칠 정도로 잘 나타낸다.

이에 필자는 어디선가 세뇌당하고 있을지 모르는 대중에게 질문하고 싶다. "당신은 빅 브라더를 사랑하는가?"

곽려원 편집국장

영대신문

발행인 최외출 | 편집인 및 원장 김정화 | 부원장 김수민
편집국장 곽려원 | 대학·사회부장 황유빈 | 편집·문화부장 이승민
인쇄처 중앙일보 |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영남대학교)
F A X 053-810-4722 | 원장실 053-810-1716
행정실 053-810-1801~2 | 편집국 053-810-1720~1

독자 쉼터

각 문제의 정답을 지운 뒤, 남은 글자를 조합한 것이 정답입니다.

체	국	디	창	독	전
융	원	사	세	로	태
새	차	지	실	환	문
민	털	학	화	서	고
운	격	도	조	대	작
합	반	시	수	업	대

1. [종합] 오는 2025년에는 000000학과와 스마트모빌리티학과가 신설될 전망이다.
2. [종합] 우리 대학교는 지난 7월 0000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3. [대학사회] 0000은 학점 교류를 통해 소속 대학과 타 대학의 공동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교육의 대안으로 제시된다.
4. [문화] 지난 4월 '2023년 00000000'에 따르면 20대의 독서율은 74.5%로 성인 독서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5. [인물] 울산 '장생포 0000'에 방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6. [특집] 전문가들은 노코드·로코드의 등장 배경 중 하나로 '000 00'을 꼽았다.

≫ 영대신문 기사를 참고하면 정답이 보입니다!

9월 25일(수)까지 ▲정답 ▲성함 ▲학부(과) ▲학년 ▲학번 ▲연락처를 적어 영대신문 인스타그램 메시지, 영대신문 메일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인스타그램: @yu_newspaper
메일: pressyu@ynu.ac.kr

기	학	덕	년	노	지
원	가	한	예	해	코
구	경	족	말	미	악
무	청	국	에	어	업
프	을	아	펫	봄	션
음	코	사	돌	로	응

◀1684호 정답
기말을 응원해

1684호 정답자
공도현(행정2·휴)

취업의 길로 인TURN!

천마로에서 나아가 사회로의 출발선에 선 우리 대학교 학생들. 우리는 세계 곳곳,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취업의 길을 걷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본교 학생들에게 인턴 경험기를 들어봤다. 가보자, 사회 속으로 IN! 이제는 YU'R턴!

전원대 학우(화학공4)

자기소개와 함께 인턴으로 근무했던 부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화학공학부 화공시스템전공 4학년에 재학 중인 전원대입니다. 저는 반도체 회사 품질팀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어요. 불량 제품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유관부서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 불량 재발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였죠.

여러 분야 중 '반도체' 분야의 인턴을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평소 반도체 분야가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후 우리 대학교의 '반도체소자공학'이라는 수업을 들으며 반도체의 매력에 더 매료됐죠. 이로 인해 반도체 분야의 인턴에 지원하게 됐어요.

인턴 합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나요?

반도체 분야와 관련된 활동이라면 무엇이든 열정적으로 참여했어요. 교내 취업처에서 진행한 반도체 관련 교육과 공정 실습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했죠. 또, 반도체 관련 연구실에서 학부 연구생으로 활동하며 반도체 장비 및 분석 장비를 직접 접해보기도 했어요. 이때의 경험들이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도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인턴 생활 중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부탁드려요.

*8D report라는 불량 해결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보완점을 제안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실제 현장에서 작성된 8D report를 이용했죠. 이 과정에서 반도체와 관련한 용어 및 지식을 함께 공부할 수 있었어요.

인턴으로 활동하며 반도체 관련 직무에서 필요하다고 느낀 역량은 무엇인가요?

반도체 소자나 회로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직무를 희망한다면 파이썬을 다루는 역량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인턴 생활 중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으셨나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 접하는 약어들이 많아 멘토님께 자주 질문을 하곤 했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한번 배운 약어나 용어들은 잊지 않기 위해 필기하고 외우는 습관을 들였어요.

인턴 생활 중 가장 노력을 기울인 부분은 무엇인가요?

'태도'에 가장 노력을 기울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자 노력했죠. 또, 인사를 할 때와 무엇인가를 배울 때 보이는 태도에도 신경을 썼어요.

본인에게 있어 인턴은 무엇이었나요? '인턴은 OO이다!'로 표현해 주세요!

'인턴은 도약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인턴은 대학 생활에서 직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해요. 제게 인턴은 업무 경험을 쌓게 해주고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약의 기회였죠.

인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꿀팁'은 무엇인가요?

인턴은 산업 및 직무가 본인의 적성에 맞는지 가장 가까이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빠른 시기에 인턴 채용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어요!

***8D report: 고객사로부터 들어온 품질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

자기소개와 함께 인턴으로 근무했던 부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잡지사에서 인터넷 기사 작성 및 SNS 콘텐츠를 제작하는 디지털콘텐츠팀에서 근무했어요. 패션 행사와 팝업 등을 취재하고 영상으로 만들어 인스타그램에 소개하는 일을 맡았죠. 또 트위터, 스레드와 같은 SNS 운영도 담당했어요.

잡지사에서 인턴 활동을 하셨습니다. 다양한 기업 중 잡지사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고등학생 때부터 잡지사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요즘 잡지사는 공채를 잘 모집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인턴으로 지원해야 했죠. 이에 대학 3년간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잡지사에 지원했어요.

인턴 준비를 위해 별도로 한 활동은 무엇인가요?

관련 경험을 쌓고자 영대신문과 교내 축구부 홍보단에서 활동했어요. 영대신문에선 주로 기사 작성을, 교내 축구부 홍보단에선 사진 촬영 및 콘텐츠 기획을 경험할 수 있었죠.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참신하고 도전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본 것 같아요. 덕분에 개인 포트폴리오도 부담 없이 완성할 수 있었죠.

인턴 생활 중에만 할 수 있던 특별한 활동이 있었나요?

제가 일했던 잡지사에서는 매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제를 진행해요. 당시 처음으로 부산국제영화제에 참가했는데, 행사 이외의 시간은 자유시간이라 보고 싶었던 영화를 잔뜩 봤던 기억이 있어요.

인턴으로 활동하며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처음 잡지 지면에 제 이름이 실렸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던 회사에 입사해 멋진 선배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뚜렷한 형태가 돼 나타난 것 같았죠. 또 제가 직접 기획해 제작한 콘텐츠가 반응이 좋을 때에도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럴 땐 콘텐츠를 제작하며 고생했던 것들이 모두 잊혀지죠.

정유진 학우 (미디어커뮤니케이션4)

실제 경험한 인턴 생활과 이전에 생각했던 인턴 생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인턴 일을 하기 전 잡지계는 저임금과 높은 업무 강도, 엄격한 선후배 문화로 악명 높았어요. 입사 전 이런 부분을 걱정했는데, 우려와는 달리 그런 악습은 많이 폐지됐더라고요. 임금 부분은 법정최저임금 이상으로 받았고, 업무 강도는 높은 편이었지만 옆에서 선배들이 잘 챙겨 주셔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3년간 영대신문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보사와 잡지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의 템포가 달라요. 학보사에서는 하나의 신문을 만들기 위해 3~4주 동안 여러 과정을 거쳤지만, 잡지사에서는 매일 2개의 이슈를 선정해 인터넷 기사를 작성했죠. 이 과정에서 매일 기사 작성 마감 시간에 쫓겼는데, 이때 3년간 신문사에서 기사를 많이 작성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됐어요.

본인에게 있어 인턴은 무엇이었나요? '인턴은 OO이다!'로 표현해 주세요!

'인턴은 도전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인턴은 어떤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 초석을 다지는 시기거든요. 인턴으로 활동하며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기소개와 함께 인턴으로 근무했던 부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사회학과 18학번으로 재학 중인 박민주라고 합니다. 저는 패션 회사 포토그래퍼로 인턴 활동을 했어요. 사진 촬영 및 편집과 함께 재고 정리, 제품 발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했죠.

인턴으로 활동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사진분야에 관심을 가지며 다양한 분야의 사진과 영상들을 촬영했어요. 해당 작업물들을 모아 포트폴리오를 마련하기도 했죠. 그러던 중 한 외국 패션 기업이 제 포트폴리오를 열람하고 인턴 제의가와 활동하게 됐어요.

포토그래퍼 분야의 인턴으로 활동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처음 사진을 잘 찍으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진을 찍은 후 편집으로 조절해야겠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죠. 조명이나 옷 구김 등은 편집으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촬영 과정에서 디테일을 미리 잡아두고, 촬영 후에는 기본적인 보정만을 하는 것을 권장해요.

박민주 학우(사회학과 18학번)

외국 회사에서 인턴 활동을 하셨습니다. 국내 회사와 비교해 외국 회사만의 특이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특이점은 사생활에 대한 질문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에요. 각자 하는 업무에 대한 간단한 질문만 오가고, 근무 외 시간에 대한 질문은 없었죠. 또, 특정 요일에 본인이 맡은 업무가 없다면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어요.

포토그래퍼 인턴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촬영은 무엇인가요?

플러스 사이즈 모델 촬영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촬영한 적이 처음이었기에 다른 자료들을 보며 구도 등을 참고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실제 촬영을 해보니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옷을 입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인턴 활동을 하면서 만족스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필요한 자재를 모두 지원해 줘 촬영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점이 좋았어요. 또, 촬영과 편집을 혼자 하며 주어진 재량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러웠죠.

인턴 생활 중 가장 노력을 기울인 부분은 무엇인가요?

'소통'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인 것 같아요. 주어진 업무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졌죠. 또한, 상사에게 현재 주어진 업무보다 그 이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노력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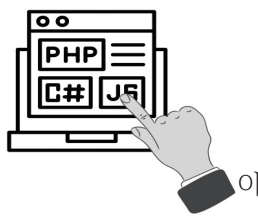
본인에게 있어 인턴은 무엇이었나요? '인턴은 OO이다!'로 표현해 주세요!

'인턴은 정직원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인턴은 배우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되,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인턴에 임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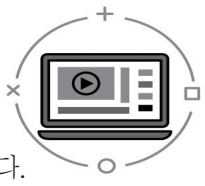
포토그래퍼 인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알려주고 싶은 '꿀팁'은 무엇인가요?

포토그래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해요. 풍성한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두면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죠.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

김규리 기자 kgl0414@yu.ac.kr
장윤아 준기자 jya0216@yu.ac.kr
한지혜 준기자 hjh1019@y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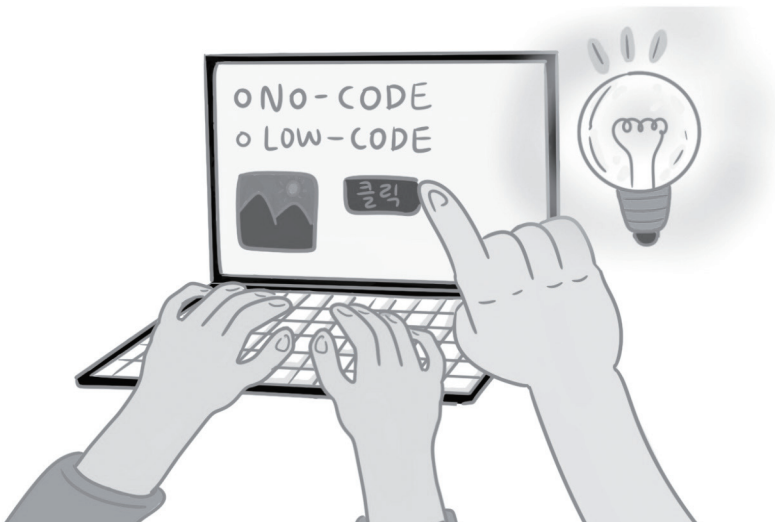


세상을 변화시킬 움직임, 노코드·로코드!



최근 비전공자들이 최소한의 코딩만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웹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노코드·로코드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노코드·로코드의 성장 배경과 활용 사례, 전망 등을 톺아봤다.

시민개발자의 탄생, 쉬운 개발의 시대



최근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며 시민 개발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누구나 쉽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노코드와 로코드가 주목받게 됐다. 지금부터 노코드·로코드에 대해 알아보자!

Do 'YU' know 노코드·로코드?= 노코드(no-code)는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워크플로우(Workflow)를 자동화할 수 있는 개발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반면, 로코드(low-code)는 노코드와 달리 코딩 능력이 일부 필요하지만, 기존 개발에 비해 간단한 코드 작성만으로도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전문가들은 노코드·로코드의 등장 배경 중 하나로 '디지털 전환'을 꼽았다. 최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회 전반의 변화가 촉진되면서 디지털 소비 또한 증가했다. 이에 노코드·로코드는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는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21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디지털을 이용해 소비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종욱 동의대 교수(컴퓨터공학과)는 "비즈니스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다양한 산업에서 노코드·로코드의 도입이 활발해지며 노코드·로코드가 급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늘은 내가 개발자!=노코드·로코드는 최소한의 코딩 지식만을 갖춘 사람들도 쉽게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개발자들만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개발 업무의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실제 노코드·로코드 플랫폼을 이용해 본 임유리 씨(시각디자인 3)는 "노코드·로코드 플랫폼의 경우 화면에 있는 기능들의 사용 방법만 안다면 쉽게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낮다"고 말했다. 더불어 장종욱 교수는 "누구나 기술적 제약 없이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노코드·로코드의 가능성을 긍정했다.

노코드·로코드는 비개발자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도 유익한 기술이다. 개발자들은 노코드·로코드를 통해 규칙적인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핵심 경쟁이 되는 어려운 프로그래밍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비개발자와 업무 과정을 공유하면서 더욱 빠른 사업 실행이 가능하다. 한노아 SAS코리아 분석 책임 컨설턴트는 "개발에 능숙한 개발자도 노코드·로코드 솔루션을 활용하면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의 조력자, 노코드·로코드=이와 같은 노코드·로코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특히 금융, 제조 등의 전문 분야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분석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한노아 컨설턴트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은 있지만 코딩 능력이 부족한 경우 노코드·로코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노코드는 데이터 분석 뿐만 아니라 업무의 생산성 증진과 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쓰인다. 마케터, 예비 창업가 등이 주로 접속하는 '노코드 캠프'에서는 *CS나 결제 안내 등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필수적인 업무를 자동화할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장병준 노코드 캠프 대표는 "노코드의 확산은 전 사회적인 생산성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코드·로코드, 그대는 선물입니다=노코드는 코딩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비개발자에게 ▲사업 ▲포트폴리오 ▲학습 등 다양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코드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관한 교육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지난 7월 비전공자를 위한 데이터 활용 교육을 실시한 기업 에이블런은 대구빅데이터활용센터에서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노코드 데이터 분석 특강을 개최했다.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교에서도 노코드·로코드 활용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 한남대를 비롯한 대전권 4개 대학은 로코드 전문기업 '클로잇'과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해당 대학들은 대학생 및 예비 창업가에게 기술 트렌드와 실습 교육을 열어 개발의 문턱을 낮추고자 했다.

우리 대학교의 '지역사탐구와 디지털재생' 수업에서도 학생들의 노코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해당 수업에서는 노코드를 활용한 웹사이트 제작과 위키 작성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었다. 이에 류준형 교수(역사학과)는 "노코드·로코드가 업무와 교육 등에 활용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기획과 창작의 영역이 핵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코드 툴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이코드로 나아가는 길=한편, 여러 방면에서 노코드·로코드를 활용하고 있지만 대중화는 이르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노코드·로코드가 정해진 플랫폼 내 개발이 이뤄져 결과물의 다양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보안 문제도 지적돼 ▲데이터 암호화 ▲열람 등 권한 부여 ▲인증 메커니즘 등 노코드·로코드 앱에 신뢰할 수 있는 장치를 심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장원두 부경대 교수(컴퓨터·인공지능공학부)는 "ChatGPT와 같은 자연어 기반 툴을 노코드·로코드 툴과 함께 이용해 코드를 처음 작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와 같은 한계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상황 속 노코드·로코드를 *프로토타입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해당 주장에 따르면 현재 노코드·로코드의 한계점을 필연적으로 인식해야 하며, 프로그램의 구성적 체계를 다져나가야 한다. 이에 한노아 컨설턴트는 "데이터를 프로그램화하기 위해 노코드·로코드를 설계도로 삼아 단계를 밟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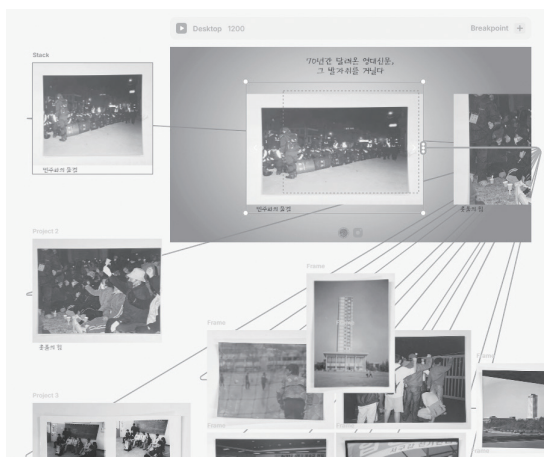
***워크플로우(Workflow): 업무의 구성과 순서, 담당자 등 작업의 운영 절차를 뜻함**

***CS: Customer Satisfaction의 약자로 반품 및 환불 처리, 고객 응대 등 고객 관리 서비스를 통칭하는 용어**

***프로토타입: 원래의 형태 또는 전형적인 예, 기초 또는 표준**

손유민 기자 sym0727@yu.ac.kr
차승효 기자 csh0524@yu.ac.kr
하진영 기자 hjy1126@yu.ac.kr

기자들의 노코드·로코드 체험 현장



영대신문 70주년 기념 웹사이트 제작 과정(하단 QR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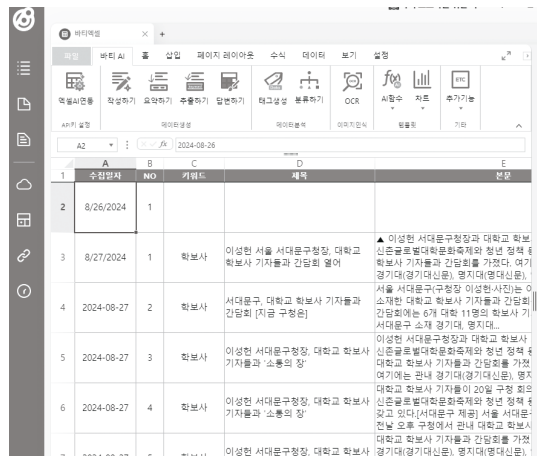
기자는 영대신문의 70주년을 기념해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며, 유의미한 기록물을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보고 싶었다. 영대신문은 대학언론사로서 ▲대선 ▲민주항쟁 ▲학생 운동 등 한국 근대사를 비롯한 우리 대학사의 굵직한 순간들을 남겼다. 이에 노코드 툴 'Framer'를 이용해 영대신문이 촬영하고 취재한 어느 날을 업데이트해봤다.

'Framer'는 디자인과 개발 경험이 부족해도 매력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해당 툴은 기본적인 페이지에 사진 삽입, 글자 변경만으로 원하는 결과물을 구현할 수 있다. 더불어 온라인에 웹사이트가 바로 게시돼 다수에게 공유할 수 있어 편리했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상 툴에 의존하게 되고, 사용자 공유 작업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이를 처음 접한 학생들은 사용 방법과 기능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영어로 된 홈페이지를 한국어로 변경할 수 있지만, 디자인 툴에 익숙하지 않거나 어떤 기능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Framer에 익숙해지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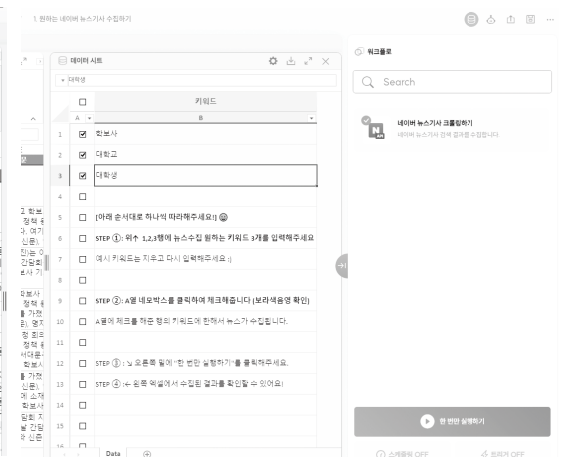
노코드 툴을 사용할 때는 명확한 목적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1980~1990년대의 학생 운동과 우리 대학교의 역사, 그와 관련한 영대신문의 기사를 한눈에 보여주고 싶다는 목적을 가지고 웹사이트를 제작했다. 이에 각종 사진에 기사의 링크를 걸어 터치 한 번으로 기사를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 대학교의 발자취가 디지털로 이어져 영대신문의 사우 선배님도 쉽게 본교의 역사와 기사를 찾아볼 수 있어 의미가 특별하다. 이번 경험을 통해 노코드 툴의 가능성을 실감했으며,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더 많은 실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티AI 기사 크롤링 기능 활용 후 화면

기자는 노코드·로코드 서비스인 바티AI를 이용해 기사 크롤링을 제작해봤다. 기사 크롤링의 경우 사용자가 핵심 키워드를 입력하면 이와 관련된 뉴스 기사와 그 외 다양한 글들이 제시된다. 이를 통해 일일이 기사를 찾아보지 않아도 한눈에 관련된 기사를 확인할 수 있어 좋았다. 또한 기사 본문을 비롯한 ▲게시 날짜 ▲링크 ▲언론사 명 등 구체적인 정보가 명시돼 있어 편리했다. 따라서 ▲교수 ▲마케터 ▲학생 등 모두에게 유용할 것이라 느꼈다. 일상 혹은 업무과정에서 단순반복적인 일과 양질의 생각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바티AI를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분배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가 입력된 데이터 시트

더불어 구조와 기능에 관한 설명, 템플릿 사용 방법 등을 알려주는 영상과 안내 글이 탑재돼 있어 쉽게 제작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덕분에 코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도 앱 제작이 가능했다. 그러나 노코드·로코드 플랫폼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영상과 안내 글만 보고 따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바티AI 내에 다양한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설명만으로 이해 및 활용하기에는 무리였다. 이에 처음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독성이 뛰어난 사용 지침서를 제공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5회 천마문학상 현상공모

천마의 대지에서, 문학을 펼치다

응모 기간 2024년 8월 16일 ~ 2024년 9월 30일

문의 영대신문 편집국 053) 810-1720~1 담당자 010-4170-6834(문자로 문의)

시상 내역
- 대상 (1명, 100만 원)
- 우수상(1명, 70만 원)
- 가작(2명, 30만 원)

현상분야
- 시 (3편)
- 소설 (200자 원고지 90매 이내)
- 수필 (200자 원고지 25매 이내)

참가방법
우편(방문) 접수 또는 메일 접수

보낼 곳
우편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학생지원센터 306호
(영대신문 편집국)
메일 pressyu@ynu.ac.kr

기타사항
- 2024년 9월 30일 (월) 소인까지 유효
- 겉봉에 '천마문학상 응모작품'이라고 표기한 후 신청서를 동봉
- 신청서는 영대신문 홈페이지 yureka.yu.ac.kr에서 다운로드 또는 방문 수령 가능
- 응모 시 재학(휴학) 증명서도 함께 제출
- 메일로 응모할 시, 작품은 한글파일(.hwp)로 재학(휴학) 증명서는 PDF 로 제출
- 우편(메일) 발송 후 010-4170-6834(담당자)로 문자메시지를 발송
- 출품작은 국내외 미발표작에 한하며, 응모작품은 미반환
- 입상자는 시상식에 참석해야 하며, 불참 시 수상 의사 없음으로 간주해 입상 취소
- 경우에 따라 당선작이 없을 시, 시상을 하지 않는다.